데스크 시각

법정 스님과 '베토벤'

김 미 은
문화1부장

오랜만에 광주의 클래식음악감상실 '베토벤'에 들렀다. 주인장 말이 며칠 사이, 먼 곳에서 손님들이 많이 다녀갔단다. 설날 TV를 통해 방영된 다큐 영화 '법정 스님의 의자'를 본 사람들이었다.

전일빌딩의 기억

영화에는 이런 장면이 나온다. 지금은 대학교수가 된 한 남자의 회고담이다. 당시 등록금이 없어 고민하던 그는 스님을 찾아가 질문을 던진다. "대학을 꼭 다녀야 합니까? 대학을 다니지 않고도 훌륭한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한참을 듣던 스님이 말한다. "베토벤에 가봐라."

법정 스님은 불일암에 머물 당시 우체국이나 은행에서 볼 일을 보고 나면 가끔씩 베토벤에 들러 음악을 듣고 가곤 했다.

베토벤에 찾아간 그 학생에게 건네진 건 등록금이 든 봉투였다. 법정 스님이 힘들게 공부하는 이들이 있으면 건네 주라며 맡겨둔 돈이었다.

'스님의 의자'를 본 사람들은 베토벤을 찾았다. 옛 기억을 더듬어 오랜만에 찾아온 이도 있었고, 대전의 부부처럼 '일부러' 찾아와 머물다 가는 이들도 있었다.

베토벤에는 스님이 쓴 글귀가 걸려 있다. '엊그제는 눈이 내려 눈 치느라고 땀께나 흘렸어요. 새해에는 날마다 좋은 날 이루시오.' '입안에 말이 적고, 마음에 일이 적고, 뱃속에 밥이 적어야 한다. 이 세가지 적은 것이 있으면 신선도 될 수 있다.' 스님의 '흔적'을 한참 동안 바라보던 이들은 커피 한잔을 앞에두고 조용히 음악을 듣다 떠났다.

몇년전, 이곳을 드나들며 위로받은 사람들이 경영난으로 문 닫을뻔한 베토벤을 살려내지 않았다면 아마도 지금의 이런 풍경은 없었을 것이다.

지금, 기자의 서랍에는 '기억 1'이라는 글귀가 써진 작은 푸른빛 조각 하나가 들어 있다. 몇년 후면 사라질 금남로 1가 1번지 전일빌딩 벽면에 붙어있던 조각이다.

최근 열린 '도시 횡단 프로젝트' 프로그램 가운데 '유랑 축제'라는 게 있었다. 작품의 무대는 전일빌딩. 공연은 엘리베이터를 타면서 시작됐다. "당신은 지금 광주 최초의 엘리베이터를 타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고 들은 것에 대해 침묵하십시요."

기억과 흔적을 사수하라

안내 멘트를 따라 도착한 9층이 본격적인 무대. 마임, 영상, 설치 등 다양한 장르로 '5월 광주'이야기가 펼쳐졌다. 피아노로 무심히 연주되는 '오월의 노래'를 들으며 눈시울이 벌게지는 사람들도 많았다.

함께 울컥하던 기자는 100여명의 다른 관객은 가질 수 없는, '유일한' 기억 때문에 더 아득해졌다. 12년 동안의 일터. 첫 공연이 열린 장소는 취재를 마친 후 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오던 주차장이었다. 피아노가 연주되던 옆 공간은 신문사 조사부가 있던 곳이었다. 기사를 위해 자료를 뒤지고, 고달팠던 초년 기자 시절, 숨어들어 꾸벅꾸벅 졸았던 곳이었다. 떠난지 8년이 넘었지만 모든 기억이 또렷했다. 공연 후 나눠준 조각을 한참 동안 손에 꼭 쥐고 있었다.

외부자의 시각으로 광주를 탐구한 서울 아티스트들은 '사라져버릴' 전일빌딩에 주목했다. 48년 동안 5·18을 비롯해 광주의 크고 작은 일들을 묵묵히 지켜본 건물, 그리고 그 안에 살았던 수많은 이들의 삶이 담긴 공간에서 흔적을 찾고, 이야기를 끄집어냈다.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들은 외면했던 부분이다.

크고 화려한 것, 새로운 것만을 좇는 시대다. 아시아문화전당도 세워지고, 광주시도 해마다 크고 작은 시설들을 신축하며 인프라 확대에 나서고 있다. 물론 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멋들어진 건물을 짓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다.

하지만 그런 흐름에 밀려 어쩌면 낡고, 작고, 사소하게 여겨지는 공간들이 허투루 여겨지지 않으면 좋겠다. 누군가의 기억이 남아 있는 곳, 특히 다중의 기억의 총합이 깃들어 있는 공간의 가치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다. 거기에 스며있는 이야기와 켜켜이 쌓인 삶의 흔적은 '유일한' 자산이다.

11일은 법정 스님이 입적한 지 3년이 되는 날이다. 스님을 기억하는 이들 중 또 누군가는 '베토벤'을 찾아 스님의 '무소유'를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길지도 모르겠다. '법정 스님의 의자'를 찬찬히 다시 보고, '베토벤'에 가봐야겠다. /mekim@kwangju.co.kr

기고

사회지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

김 상 열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지난 19일 '더기빙플레지'(The Giving Pledge)에 인도의 빌 게이츠로 불리는 아짐 프렘지 위프로토테크놀로지 회장을 비롯한 세계 억만장자 12명이 새로 참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세계적으로 기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더기빙플레지'(The Giving Pledge)란 2010년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회장과 워런 버핏 버크셔해서웨이 회장이 중심이 되어 만들어진 기부서약캠페인으로, 생전이나 사후에 자신의 재산 절반 또는 그 이상을 기부하겠다고 공개적으로 약속하는 것이다. 총 104명의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5000억달러(542조원)의 자산 규모를 지닌 이 통큰 기부클럽에 미국인이 아닌 사람이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미국에서 시작된 통 큰 자선 움직임이 유럽과 아프리카로 확산 중이라고 한다. 이는 기부에 대한 동참이 세계적으로 확산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도 세계적 기부 확산에 동참하며 기부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더기빙플레지'처럼 사회 지도층의 개인 고액기부자 클럽이 존재한다. 바로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아너소사이어티(Honor Society) 클럽이다. 아너소사이어티란, 기부문화의 성숙을 이끌어 사회공동체의 발전을 도모하는 사회지도자들의 모임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원 이상 기부 또는 약정하는 개인에게 자격 조건이 주어진다. 현재 전국적으로 258명이 가입 중으로 광주에도 7명의 회원이 가입되어있다. 이처럼 전 세계적으로 고액 기부자 모임이 늘어나며 주목받는 현상에 비추어 우리는 조심스럽게 이 시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유추해볼 수 있다. 그것은 바로 '노블레스 오블리주'(noblesse oblige)이다.

노블레스 오블리주란, 사회 고위층 인사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도덕적 의무를 뜻한다. 이는 지배층의 도덕적 의무를 뜻하는 프랑스 격언으로 정당하게 대접받기 위해서는 '명예'(noblesse)만큼 '의무'(oblige)를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사회 환원 즉, 나눔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지도층에게는 높은 수준의 나눔 실천을 기대하고, 도덕의식을 측정함에 있어서도 높은 잣대를 적용한다. 하지만 소득이 많을수록 기부는 저조하다는 국세청의 통계를 보더라도 사회 지도층의 기부는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현실이다. 사회지도층에게는 사회적 책임이 따르는 만큼, 영위하고 있는 부를 어려운 사람과 나누며 베푸는 일에 솔선수범하는 의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또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연장선상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에 근거한 사회공헌활동은 그 중요성이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오늘날에는 기업의 성장과 발전이 사회나 국가 경제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치며, 이로 인해 기업의 사회적 위치가 커지고 그만큼 기업에 요구하는 사회적 책임도 커지게 되었다. 이러한 기업에게는 이윤극대화나 고용 창출, 윤리경영뿐만 아니라 자선적인 책임인 사회공헌, 자선 활동의 실천이 중요하다. 국민이 준 기업의 이익을 일정 부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활동하는 기업가야말로 진정한 기업의 오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장기적인 경기불황으로 모두가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다지만, 우리네 어려운 이웃들은 더욱더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물론 본인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금전적으로 남을 돕는 일이 부담이 될 수도 있는 일이다. 그래서 요즘은 재능 나눔이라는 본인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을 함으로써 남을 도울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다.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봉사활동을 하거나 일과 후 야간에 방치되는 아이들에게 공부를 가르치는 등 남을 돕고자하는 마음만 있다면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봉사활동이나 기부 실천 등은 이웃사랑을 위한 헌신의 마음만 있다면 충분히 실천 가능한 일이라 생각된다.

이렇게 본인의 능력껏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은 보다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투자가 된다.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원할 성금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서 서민들의 십시일반 기부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사회지도층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으로 보완해준다면 국내 사회복지의 발전과 기부문화의 확산이 훨씬 열기를 띠지 않겠는가. 희망을 품고 시작한 2013년, 의식 있는 사회지도층의 진정한 사회공헌활동과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천을 기대한다.

은펜칼럼

대학가지 않아도 행복한 세상

송 민 석
통일부 전남통일교육센터장

황제펭귄의 자식사랑은 유별나다. 키 1.2m, 몸무게 50kg의 황제펭귄은 남극의 얼음 위에서 짝짓기를 한 후 암컷이 알을 낳아 수컷에 넘겨준다. 혹한에 알이 얼음에 닿으면 금방 얼어붙기에 수컷은 알을 발 위로 조심스레 받아 자신의 배로 덮어 부화시킨다. 알을 낳아 넘겨준 암컷이 바다를 향해 100km가 넘는 먼길을 뒤뚱거리며 갔다 오는 동안 수컷은 두 달간 아무것도 먹지 못한 채 굶주린다.

알을 품은 아빠 펭귄들은 서로의 체온을 의지해가며 영하 50도의 추위와 시속 100km가 넘는 눈보라를 견뎌내야 한다. 새끼에게 줄 먹이를 뱃속에 가득 채워 암컷이 돌아오면 이제 수컷이 행군할 차례다. 이런 식의 반복으로 황제펭귄 부부는 연간 230일 가량을 오직 자식 하나를 위해 극한의 어려움을 무릅쓴다.

대한민국 부모들도 사실 황제펭귄 못잖다. 해마다 입시철이 되면 대학입시 설명회장은 학부모들로 자리다툼의 각축장이 된다. 입시전략을 설명하는 학원 강사의 설명을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금과옥조처럼 받아적는다. 대학입시가 초·중등교육을 왜곡시키고, 대학을 향한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질주가 고장 난 브레이크처럼 위험수위를 넘은 지 오래건만, 교육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는 남을 의식하는 문화가 유난스럽다. 요즘 서울 강남에서는 과시적 육아 경쟁이 영유아 사교육에서부터 요란하다. 영어유치원의 경우 교육비와 교재를 합쳐 월 100만원 내외, 5세 이하 유아들이 다니는 다른 놀이학교는 영어와 발레, 수학과 요리 등을 가르치는 '리더십 수업'을 내세워 월 130만원의 수업료를 받는다고 한다. 이런 곳에서 내 아이만은 최고로 해주고 싶은 '벤츠유모차' 심리가 사치성 사교육의 악순환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뿐인가. 자녀를 외국인 학교에 입학시키기 위해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외국 국적을 취득한 학부모들이 무더기로 적발되기도 한다. 재벌그룹 가족, 변호사, 병원장 등 사회지도층과 부유층들이 다수 포함돼 있다고 한다. 일류대학의 진학 여부가 자식농사의 성패로 여기는 우리의 현실에서 부모들은 비장의 정보를 활용하여 자녀를 명문대학에 보내기 위한 '매니저'로 전락하고 있는 듯하다.

다른 나라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우리나라 교육의 실상이 국민행복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 우리의 교육열이란 대학입시에 대한 열기가 아닌가. 좋은 대학에 보내는 것이 교육열의 알파요, 오메가다. 지나친 교육열은 사교육을 불러오고, 높은 학업성취도는 학생들의 과도한 스트레스와 OECD 국가 중 학생 자살률 1위로 내몰고 있다. 나아가 절망과 좌절의 고학력 청년실업으로 이어지고 있음이 안타까울 뿐이다.

우리나라 대학 진학률이 80%를 넘어 세계 1위다. 국민소득이 6만 불로 우리의 3배인 선진 강국 스위스의 대학 진학률 20%와 비교하면 기현상이 아닐 수 없다. 대학이라는 간판이 없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인식이 문제다. 우리 사회의 뿌리 깊은 학벌주의에 따른 폐단일 것이다. 우리나라 박사학위 소지자 4명 중 1명이 실업자라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선진국일수록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학력에 따른 소득 격차가 크지 않으니 당연히 진학률이 낮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한국의 높은 대학진학률은 그만큼 사회적 차별과 소득 격차가 크다는 현실 반영이 아닐까 싶다. 불황과 빈곤에 빠진 브라질을 경제대국 8위로 성장시킨 룰라대통령은 초등학교 중퇴였다. 대학을 가지 않아도 행복한 세상이 되어야 한다.

눈덩이처럼 불어만 가는 사교육비와 초·중·고교에서의 입시위주 파행교육은 과잉 학력시대의 부산물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인성교육, 창의성 교육, 진로교육, 교육 강국을 아무리 외쳐봐야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는 지금 이야말로 교육의 본질에 대한 진정성 있는 고민이 필요할 때라고 본다.

은펜칼럼은 오피니언 기고 최우수작 수상자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칼럼을 싣는 코너입니다.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社 說

선원 7명 실종사고 선박 뺑소니 탓이라니

지난 4일 낮 진도군 조도면 독거도 해상에서 어선이 전복돼 선원 7명이 실종된 사고는 지나가던 선박이 충돌한 후 뺑소니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경 조사 결과, 심야에 고속으로 달리는 화물선이 어선을 덮쳐 두 동강을 내고서도 항해사가 배를 몰아 도주했다는 것이다.

대광호(9.77t) 침몰사건을 수사 중인 목포해경은 5일 어선을 전복시킨 뒤 도주한 한국선적 LPG 운반선 오션 US호(2967t) 이등항해사 이모씨를 긴급 체포했다. 당직 근무자로 조타기를 잡은 이씨는 이날 오전 1시27분께 사고 해역에 그물을 내려놓고 조업 대기하던 대광호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에 따르면 사건 하루 만에 이씨를 검거할 수 있었던 데는 항적자료가 일등공신이었다고 한다. 항적기록을 해군 등으로부터 넘겨 받아 이 시간대 사고 해상을 지난 선박 50척을 대상으로 10분, 5분, 1분 단위로 나눠 항적자료를 분석했다. 그 결과, 사고 어선과 1마일 거리의 항해 선박이 3척으로 좁혀졌다. 해경은 5일 US호 선체에서 충돌 흔적을 발견하고 이씨를 붙잡았다.

이번 사고는 바다에서 뺑소니라는 것도 황당하지만 실제 뺑소니로 인해 7명이 실종됐다니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어선을 파괴한 것도 모자라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선원들을 구조하지 않은 채 도주한 것은 살인이나 다를 바 없다.

해상에서 기관 고장을 일으킨 선박이나 사고로 인해 선원들이 표류할 때 지나가는 선박이 이들을 구조하는 것은 상식이다. 전쟁 중에도 적군을 살리는 건 불문율처럼 돼 있다.

사법당국은 육상에서의 뺑소니보다 더한 중형을 내려 재발 방지에 나서야 한다. 바다의 특성상 뺑소니는 더 큰 화를 부르게 돼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해경은 사고 해역에 대한 광범위한 수색을 벌여 실종자를 반드시 찾아내야 할 것이다.

기아차 노노간 갈등 증산 차질 안된다

광주경제의 한 축인 기아차 광주공장의 62만대 증산 프로젝트가 차질을 빚고 있다. 광주공장 증산 계획은 애초 2월부터 가동될 예정이었으나 노조간 내부 갈등으로 일정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기아차 광주공장은 지난해 2800억여원을 들여 2공장의 생산규모를 기존 42UPH(시간 당 생산대수)에서 66UPH로 올리는 공사를 마무리했다. 또 3공장도 21UPH에서 23UPH로 늘리는 등 전체 생산규모를 현 연간 50만대에서 올 초부터 62만대로 늘릴 계획이었다. 하지만, 2월 증산 일정은 수포로 돌아갔고 향후 증산 일정도 잡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증산 계획이 차질을 빚는 것은 노조 내부 갈등으로 대의원대회 일정이 장기화되면서 증산과 관련한 노사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탓이다. 기아차 노조 지부 대의원대회가 지난해 12월부터 2월까지 장기간 열린데다 광주지회 정기대의원대회 역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게다가 전임 집행부와 현 집행부가 조합비 문제로 갈등을 빚으면서 이달말까지 정회를 선언한 상태다. 현 집행부는 지난해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결과에 따라 부당 사용 조합비를 환수키로 하고 전임 집행부를 고소·고발한 것이다.

문제는 광주 2공장 생산설비 곳곳이 텅 비어 있고, 증산에 대비해 지난달 15일까지 서류접수를 진행한 생산직 채용 일정도 늦어지는 등 증산 계획이 올스톱돼 있다는 점이다. 이는 곧 기아차 증산 일정에 맞춰 설비투자를 한 협력업체의 피해로 이어져 더 심각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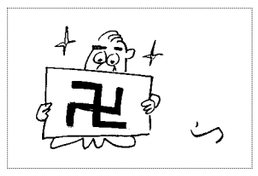
우리는 노조의 내부 문제까지 가타부타 관여하고 싶진 않다. 그러나 증산 계획 차질은 회사의 사운이 걸린 중요한 문제이자 지역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기아차와 지역경제가 노노갈등에 휘둘리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無 等 鼓

우만자(右卍字)

전세계의 상징(Symbol)들을 살펴보면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적지 않다. 대표적인 것이 만(卍)자다. 힌두교에 뿌리를 둔 것으로 알려진 이 만자는 행운과 번영을 의미하며, 가장 상서로우면서도 오래된 상징으로 꼽힌다.

산스크리트어로 스바스티카(Swastika)로 불리는 만자는 3000년 전부터 사용됐으며, 태양의 운행과 삶·죽음·환생의 순환을 나타냈다. 악귀와 액운을 막아준다고 하여 양탄자나 옷의 테두리 무늬로 쓰였다. 네 갈래로 꺾여 뻗어나간 선들은 인간의 네 가지 고결한 목표를 상징한다고 한다. 올바른 행위규범의 준수, 사랑, 부유함, 해탈이 그것이다.



만자는 남미, 중미, 북미, 유럽, 서아시아에서도 발견된다. 오른쪽으로 도는 우만자(右卍字)는 태양과 관련, 동쪽에서 떠올라 서쪽으로 기우는 태양의 운행을 나타낸다. 힘의 발산을 뜻하기도 한다. 창조의 힘이 나선으로 뻗어나가 세상을 만들고, 수많은 별을 뿌려놓았다는 것이다.

왼쪽으로 도는 좌만자(左卍字)도 있는데, '순수하고 신성한 에너지로 되돌아가는' 우주를 나타낸다고 하며 우만자와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고대 게르만족이 쓰던 룬문자에서 행운의 상징으로 사용됐지만, 1935년 9월 히틀러가 국기로 제정하는 바람에 나치의 로고(하켄크로이츠)로 받아들여지면서 서양에서는 두려움과 혐오, 증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상징으로 변질돼버렸다.

최근 세종대왕의 익선관(임금이 정무를 볼 때 쓰던 모자)으로 추정되는 유물이 공개됐다. 임진왜란 당시 일본에 약탈당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이 모자에는 특히, 임금 왕(王)자와 함께 오른쪽으로 도는 '우만자'가 정교하게 수놓아져 있어 관심을 끈다.

전 세계적으로 행운과 번영의 상징인 '만'자가 조선으로 흘러들어와 왕의 모자에까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는 점이 상징의 힘과 보편성을 보여주는 것 같아 이채롭다.

/홍행기 사회1팀장 redplane@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奇賢鎬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 제 부	2200-663	경영지원국	2200-515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문화사업국	2200-541
편 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F A X	222-8005〉
정 치 부	2200-612	체 육 부	2200-697	〈F A X	222-0195〉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광고마케팅국	227-9600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독자서비스국	2200-551
〈대표 FAX	222-4267〉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프로젝트팀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